



전북현대 선수들이 빈즈엉FC(베트남)와의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4차전을 하루 앞둔 5일 고대우 스타디움에서 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빈즈엉(베트남) | 사진공동취재단

전북, 빈즈엉전 완승이 필요한 이유

조 2위 장수, 승점 1점차 바짝 추격
조지력·경기감각 UP 중요한 과제



전북현대대는 2015년 아시아 정상을 꿈꿨다. 그러나 4월 8일 뜻하지 않은 첫 일격을 맞았다. 빈즈엉FC(베트남)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경기에서 종료 직전 동점골을 내주며 1-1로 비겼다. 승점 1을 추가하는 데 그치면서 조 1위로 16강에 오르겠다는 의지 또한 꺾였다. 결국 전북의 도전은 8강에서 멈췄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이번에도 빈즈엉 원정이다. 전북은 6일 빈즈엉 투더우트 고대우 스타디움에서 올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4차전을 치른다. 지난해 15일 안방에서 열린 3차전(2-0 승)에 이은 리턴매치. 전북 최강희 감독은 결전 하루 전인 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쫓기듯 플레이를 하면 안 된

다.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흐름으로 끌어가야 한다. 원하는 결과를 챙기겠다"며 필승의지를 불태웠다.

●1승 이상의 가치

전북은 올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승1패, 승점 6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이 우선이기에 마지막 경기까지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조 2위는 1승2무, 승점 5의 장수 쉰닝(중국). 조별리그 1차전에서 FC도쿄(일본)를 2-1로 꺾은 전북은 지난달 장수 원정 2차전에서 2-3으로 패했다. 다음달 4일 홈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장수와 승점에서 동률을 이루면 1위를 내주게 된다. 그런 만큼 빈즈엉 원정은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5일 기자회견에 나선 김형일은 "동남아 원정은 전력 외적인 변수가 많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많은 경험 감독은 결전 하루 전인 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쫓기듯 플레이를 하면 안 된



전북 최강희 감독(오른쪽)과 김형일이 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빈즈엉전 필승의지를 밝히고 있다. 빈즈엉(베트남) | 남정현 기자

치와 함께 2007년 대전 시티즌 소속으로 이곳에서 펼쳐진 친선국제대회에 출전한 적도 있다.

●경기감각까지 'UP'

시즌 초반부 전북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가우뚱했다. 올 겨울 이뤄진 대대적인 전력보강 덕분에 일찍부터 강하게 치고 나가리란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감독은 급하지 않다. 그는 "선수단이 서로 짜여진 데다, 합류 시기도 제각각이었다. 군사훈련 등으로 동계훈련을 거의 소화하지 못한 선수들도 있다. (완벽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런 면에서 4월은 반갑다. 일주일 2~3경기씩 이어지는 스케줄에 따라 선수들을 고루 기용할 전망이다. 부상자들도 대거 합류한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전이 최선이라는 지론을 가진 최 감독은 3월까지 매 경기 새로운 스쿼드를 가동했다. ▲베스트 진용 구축 ▲조직력 완성 ▲전술 실험 ▲경기력 강화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게다가 시즌 초 부상으로 재활에 매진해온 왼쪽 풀백 최재수가 이번 빈즈엉 원정에 합류했다. 녹색 유니폼을 입고 드디어 선을 보인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선발 출격이다. '진전 앞으로'를 외치는 녹색군단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태세다.

빈즈엉(베트남)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소매치기 잡은 상주 선수들 "당연한 일 했지 말입니다"

이용·박진포 등 7명 외출 중 선형
상주상무 소속 프로축구선수들이 소매치기범을 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주 선수들은 3일 오전 9시경 경북 점촌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소매치기범을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용, 박진포, 김성환(이상 상병), 김성주, 김성준(이상 일병), 이경렬, 조영철(이상 일병) 등은 이날 국군체육부대에서 외출을 허가받아 시내로 일찍 나왔다. 이들은 점촌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도와달라"는 시민의 외침을 듣고 한 할머니의 가방을 가로채 달아나는 남성을 목격했다. 100여m를 뒤쫓은 끝에 범인을 잡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인계했다.

이들의 선형은 도움을 받은 시민이 다음날 국군체육부대로 연락해 오면서 알려졌다. 사건 당시에는 도움을 준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국군대표선수'라는 부착물이 붙은 옷을 기억하고 경찰서를 통해 고맙다는 말을 전해왔다. 조영철은 "국군체육부대에 전입해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인다운 일을 하게 돼 기쁘다. 국군대표선수라는 자부심으로 올해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도 패기와 투지로 좋은 성적을 거두 성원을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군체육부대는 7명의 선수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고, 구단 역시 선수들을 위한 포상을 준비 중이다. 또 문경경찰서는 범인 검거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탈세 의혹에 휘말린 리오넬 메시 전 FIFA 간부 2인도 탈세 포착

세계축구계가 후안 페드로 다미아니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와 세계적 스타 리오넬 메시(29·FC바르셀로나) 등의 탈세 의혹으로 또 다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5월 FIFA 고위 관계자들의 뇌물수수 스캔들이 터진 데 이어 다시 개인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한국시간) 탈세로 악명 높은 파나마 법률회사 모사크 폰세카의 내부 자료를 분석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모사크 폰세카를 중심으로 이뤄진 전 세계 유명인사들의 탈세 정황이 담겨있

다. 여기에는 제물 받게 전 FIFA 사무총장, 에우헤니오 피게레도 전 FIFA 부회장도 포함됐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다미아니 FIFA 윤리위원이 피게레도 전 FIFA 부회장, 아르헨티나 스포츠마케팅업자 우고 힌키스 부자와 관련된 회사 중개인으로도 활동했다. 3명 모두 FIFA 뇌물 스캔들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이라 다미아니 FIFA 윤리위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다. FIFA 윤리위원회는 각종 비리와 관련한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윤리위원 1명이 연루된 이번 탈세 스캔들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위원회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시는 아버지와 함께 파나마 소재의 페이퍼 컴퍼니인 '메가스타 엔터프라이즈'의 실소유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에도 스페인에서 여의 회사를 이용한 탈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메시는 5일 관련 보도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FC포르투, 최하위 톨렌타에 0-1 패
석현준(25·FC포르투)이 5일(한국시간) 에스타디우 두 드라카오에서 열린 2015~2016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리가가 톨렌타와의 홈경기 후 16분 교체 출장했지만 공격 포인트 생산에 실패했다. 팀도 0-1로 졌다. 루이스 알베르토에게 선제골을 내주자마자 세르히오 울리베이라 대신해 투입된 석현준은 활발하게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득점이나 도움을 올리지 못했다. 안방에서 리그 최하위 톨렌타에 달미를 잡힌 FC포르투(승점 61)는 선두 벤페카(승점 70)와의 간격이 더 벌어져 사실상 자력 우승이 어려워졌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80번째 '그린재킷' 주인공은?

■PGA 2016 마스터스 내일 개막

데이·스피스·매길로이 '빅3' 빅뱅
안병훈, 국내선수 중 유일하게 출전

'별들의 축제' 마스터스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80번째 그린재킷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7일(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마스터스는 꿈의 무대로 통한다. 오로지 초청받은 선수에게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89명의 선수가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밟는다. 1998년 88명 이후 두 번째 적은 인원이다. 2002년(89명)과 같다. 술한 명승부를 연출해온 마스터스에서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까.

●'빅3' 황제들의 전쟁

2016 마스터스의 최대 관심사는 '황제' 정황전을 벌이고 있는 '빅3'의 대결이다. 세계랭킹 1위를 되찾은 제이슨 데이(호주)와 마스터스 2연패를 노리는 조던 스피스(미국) 그리고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앞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펼칠 3대결이 전 세계 골프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주일 전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제이슨 데이는 최근 '무적행진' 중이다. 3월 들어서만 아널드파머 인비테이셔널과 WGC 펠 매치플레이 챔피언스에서 연속 우승했다. 역대 마스터스에서도 2011년 준우승, 2013년 3위에 오르는 등 늘 우승권에 있었다.

디펜딩 챔피언 스피스는 지난해 마스터스에서 메이저대회 72홀 최소타(270타) 타이 기록을 세웠다. 최종라운드 15번홀에서는 메이저대회 사상 처음으로 19언더파 고지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스피스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 1월 현대토너먼트 우승 이후 부진에 빠져있다. 특히 최근 3차례 출전한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에선 12라운드 중 5번이나 오버파 타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난조를 보이고 있다.

2011년 US오픈, 2014년 브리티시오픈, 2012년과 2014년 PGA 챔피언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매길로이는 그린재킷만 입으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마스터스에서 매길로이만큼 붙을했던 선수도 드물다. 2011년엔 최종라운드를 선두로 출발했지만 80타를 치는 바람에 공동 15위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매길로이는 여전히 강력한 우승후보다.

'빅3'를 위협할 경쟁자로 리키 파올라(미국)와 애덤 스콧(호주) 등이 주목받고 있다. 파올라는 PGA투어닷컴이 선정하는 마스터스 파워랭킹(우승후보)에서 제이슨 데이를 제치고 당당히 1위에 선정됐다. 보기율이 가장 낮고, 온그린 확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역대 마스터스 최고 성적은 2014년 공동 5위다. 2013년 마스터스 우승자 스콧은 최근 상승세에 힘입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짐 허먼 등 20명 처녀 출전

마스터스에 초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두 18기차. 첫 번째 항목은 마스터스 우승자다. 평생 출전이 보장된다.

18기차 출전 조건에 따라 올해 초청된 인원은 모두 108명. 그러나 역대 마스터스 챔피언 중 제 니클라우스와 아널드 파머, 게리 플레이어, 닉 팔도, 타이거 우즈 등 16명이 불참을 선언했고, 2014~2015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우승으로 초청장을 받은 배상문(30)은 군 복무 관계로 출전하지 못한다. 프레드 커플스(미국)는 허리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89명 중 20명은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하며, 그 중 6명은 아마추어 골퍼다. 마스터스에 막차로 합류한 주인공은 지난 주셀 휴스턴오픈 우승자 짐 허먼이다. 마스터스 출전에 처음이다. 한국선수로 유일하게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안병훈(25·CJ)은 세계랭킹 50위 이내(17번과 18번째 조항)에 들어 초청장을 받았다. 마스터스를 주최하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빌리 페인 회장은 내년 마스터스 출전에 한 가지 조항을 신설했다.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마스터스 초대장을 보내기로 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우간다 출신 나마쿨라 "KLPGA 또 도전"

선발전 공동 106위...프로꿈 좌절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도전하겠다."
'코리언드림'을 꿈꾼 우간다 출신의 아마추어 골퍼 플라비아 나마쿨라(31·사진)의 도전이 어렵게 좌절됐다.

5일 전북 군산의 군산골프장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16년 준회원 선발 예선전은 이례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준회원(세미프로)은 투어프로를 준비하는 첫 단계. 준회원 선발전을 통과해야만 10월 열리는 정회원(프로) 선발전에 나갈 수 있다.

137명의 선수 중 재미교포 리사 강을 제외하고 유일한 외국인인 나마쿨라는 프로의 꿈을 안고 멀리 우간다에서 날아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여자골프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다. 우간다레디스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우간다에서는 골프로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파다.

나마쿨라가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는 세계여자골프의 강자로 우뚝 선 KLPGA 무대에 프로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다. 나마쿨라는 대회 전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비가 많이 들었지만, 원하는 7월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아쉽게 나마쿨라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준회원 선발전에 출전하기 위해 우간다에서 두바이까지 비행기로 6시간, 다시 두바이에서 한국까지 10시간 동안의 힘든 일정을 참아내며 꿈을 찾아왔지만, 선발전에서 10오버파 82타를 쳐 공동 106위(72위까지 본선진출)로 탈락했다. 그러나 나마쿨라는 재도전하기로 했다. 그는 7월 예정된 2차 선발전에도 출전하기로 했다. 나마쿨라는 "7월에 다시 도전하겠다"며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